

# 빗물 땅속 투수성 높인다

### 전주시, 내년 말까지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중 도로 콘크리트 블록 투수성 높은 포장재로 교체·침투도랑·침투데크 등 조성

도시의 물순환 체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도로의 콘크리트 블록을 투수성 높은 포장재로 교체하고, 침투도랑과 침투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내년 말까지 국비 119억 원 등 총 221억 원을 들여 덕진공원 일원 3.94km에서 추진하는 '덕진공원 유역 LID(Low Impact Development)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도시개발로 왜곡된 도시의 물 순환 체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이 사업은 빗물의 땅속 투수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침투도랑, 침투데크, 식생체류지(빗물정원)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덕진공원 유역을 ▲전북대병원 ▲전북대학교 구정문 ▲풍물원·소리문화전당 ▲전북대학교 내 ▲덕진공원 내 등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전북대병원과 전북대학교 구정문, 풍물원·소리문화전당 등에서 침투도랑 및 침투데크를 설치하고 투수성 포장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나머지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덕진공원 내 산책로와 광장의

경우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마사도로 포장할 방침이다. 마사토의 경우 촉감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우수하다.

시는 이 사업으로 우천 시 오염된 초기 우수(빗물)의 하천 유입을 줄여 덕진연못 상류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 물 순환 구조 개선, 도시경관 향상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 1기 활동 성과 발표회

### 전주형 주택점수제 ·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 구축 방안 등 제안

전주지역 청년들이 청년의 눈으로 지역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제안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4개월간 펼쳐온 '전주시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1일 최종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만 19~39세 청년 10명으로 구성된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은 지난 9월부터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홍보해 주거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누룽지팀 ▲브릿지팀 ▲코디하우스팀 등이 그동안의 팀별활동을 공유하며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거쳐 발굴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제안했다.

누룽지팀의 경우 해외 주거복지정책 중 네덜란드의 주택점수제에 주목하면서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 시 '전주형 주택점수제'를 만들어 이를 명확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브릿지팀은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현황을 조사하면서 ▲스마트폰(기기) 교실 등 교육·동아리 활성화 ▲문화의 날 등 주민 행사 ▲커뮤니티 활동 공간 운영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디하우스팀은 장애인 가구 인터뷰 조사를 통해 1인 월세어 가구의 주거 공간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손잡이 모양, 문의 모양, 가전, 가구 스위치의 높이, 단차이 등 장애물이 없는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야호학교, '전주사람 프로젝트' 성료

### 신흥중·오송중·용소중·전일중 학생 233명과 프로젝트 운영

전주시 야호학교가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주의 정신·문화·관광지·역사·예술 등을 소재로 스토리가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아가는 활동이다. 지역과 학교와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자긍심과 자기주도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시 야호학교가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시작해 이달 10일 종료된 올해 프로젝트에는 신흥중, 오송중, 용소중, 전일중학교에서 23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각 학교에서는 ▲코칭 이론 교육 및 실습 ▲미디어 활용 교육 ▲전주와 학교를 소개하는 시나리오 제작 ▲팀별 영상 촬영·편집 활동 ▲최종 결과물 발표회 및 시상식 등의 활동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창안 이상만 선생과 부채이야기 및 오송중학교 특화 공간 소개 ▲천년을 이어온 한지와 120년 역사의 신흥중학교 소개(3·1운동비, 사적비, 포치 등) ▲전주의 멋과 맛, 건지산 및 용소중학교 소개 ▲꽃심과 모래내 전통시장 및 거북바위 등 전일중학교 소개 영상 등을 제작해 발표했다.

참여한 학생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역사와 아름다운 전주, '꽃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보는 활동이 특별한 경험이어서,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확

대해 이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주도력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한옥마을 명소 담은 컬러링북 발간

시, 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 등 주요 여행지 20곳 라인드로잉으로 표현

전주한옥마을을 경기전, 전동성당, 전주향교, 자반벽화마을 등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담긴 컬러링북이 발간됐다. 컬러링북은 색을 칠할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도안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자반벽화마을을 골목길 등 주요 관광명소를 라인드로잉으로 표현한 '전주한옥마을 컬러링북'을 제작하고 여행객들에게 배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컬러링북에는 한옥마을 내 주요 여행지 20곳의 도안이 담겼다. 주요 여행지로는 ▲풍남문 ▲전동성당 ▲경기전 ▲어진박물관 ▲최명희문학관 ▲교동미술관 ▲600년 은해사 ▲승광재 ▲전주한옥마을 역사관 ▲오목대 당산나무 ▲오목대 ▲자반벽화마을 ▲안사재·쌍생 ▲10경골목길 ▲현대수퍼 ▲전주동헌 ▲전주향교 ▲오목교 ▲남천교·청연루 ▲남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컬러링북 작업은 한옥마을 내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 중인 김안 미술작가가 맡았다. 김 작가는 기존 건물이나 풍경 등을 소재로 한 정

화된 제작 방법에서 벗어나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스토리를 간직한 명소들을 독특한 상상력과 풍부한 창의력으로 재해석했다.

컬러링북은 작가가 직접 색칠한 완성본과 여행자가 그릴 밑그림이 양쪽에 배치돼 어린이 등 초보자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다. 특히 도안 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여행의 좋은 추억이 기억 속

에 남아 한옥마을을 다시 찾고 싶도록 만들어졌다.

컬러링북 도안이나 그림의 완성 과정은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와 전주한옥마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컬러링북은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온라인 스탬프 투어' 참여자 중 완주자에게 기념품으로 배부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설공단, 100l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종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100l 용량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의회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용량을 50l 이하로 제한하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100l 용량의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무거운 무게로 인해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업무 중 허리나 손목, 팔꿈치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00l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했으며, 기존에 생산된 물량은 전량 판매가 마무리

된 상황이다. 공단은 50l 용량의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전주시 청소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